

SeMA

press Release Vol. 1

2014.04.11

홍보담당 변지혜

Public Relations Byun, Ji-hye

T. 02-2124-8928

E.mail. bsjihye@seoul.go.kr

webhard. <http://webdisk.eseoul.go.kr>

ID:bsjihye PW:sema2013

서울시립미술관 2013 신소장작품전

<선물 SeMA Gift>



전시명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작품전 2013 <선물 SeMA Gift>
전시기간	2014. 4. 15(화) - 6. 1(일)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전시부분	한국화, 회화, 사진, 뉴미디어 등 60여점
전시작가	강서경, 고영택, 김구림, 김동욱, 김세진, 김을, 김인순, 김진숙, 김태호, 김희정, 노상균, 도로시엠윤, 박경주, 박승원, 박영숙, 석철주, 오경환, 오원배, 위영일, 유근택, 윤석남, 이경, 임민욱, 장화진, 정광화, 정정엽, 최선명, 최수환 (28人)

- 서울시립미술관이 2013년 한 해 동안 수집한 신소장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 80-90년대 페미니즘 미술과 같은 미술사적 의의를 가진 작품과 역량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다양한 매체의 동시대 대표작품들을 선별하여 구성함으로써, 미술관이 지향하는 수집방향 제시
- 전시의 제목 '선물'은 우리 미술관이 수집한 소장작품을 선보이고 공유하고자 하는 소통의 의미이자,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 기증에 대한 감사의 표현
- 전시는 2013년 소장작품들에 보이는 내용적 경향에 따라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box Feminism**, **box Painting**, **box Media**의 공간으로 차별화하여 구성

전시 개요

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 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2013 신소장작품전 <선물 SeMA Gift>를 개최한다.

‘신소장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전년도에 수집한 새로운 소장작품을 소개하는 연례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2013년에 수집한 총 237점의 작품 가운데 한국화,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2013 SeMA 신소장작품은 2012년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새롭게 설정한 수집 정책에 따라,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미술사적 의의를 가진 작품과 대표적인 중견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다양한 매체의 동시대 대표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공예 작품을 고르게 수집하여 컬렉션의 장르별 균형을 기하고자 했다.

전시의 제목인 ‘선물’은 서울시립미술관이 한 해 동안 수집한 작품을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의미이자, 소장작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가들의 기증 작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기증 받은 작품은 2013년 신소장작품 전체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본관 1층 전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신소장작품을 담은 하나의 ‘선물상자 Gift Box’로 디자인된다. 전시는 2013 신소장작품들에 보이는 내용적 경향에 따라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box F, box P, box M이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는 80-90년대 페미니즘 미술과 같은 미술사적 중요 작품을 비롯하여 역량 있는 중견작가와 젊은 세대 작가들이 보여주는 현재진행형의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다양한 사회문화적 담론은 물론, 시각예술의 본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내용**box F.**

김인순, 김진숙, 김희정, 도로시엠윤(윤미연), 박영숙, 윤석남, 정정엽

box Feminism은 1980-90년대 한국 페미니즘미술을 대표하는 중견 여성작가들과 동시대 젊은 여성작가들이 보여주는 ‘여성의 삶과 현실’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메쉬(mesh, 철조망) 구조물 내에 전시되는 김인순, 김진숙, 박영숙, 윤석남, 정정엽의 작품은 가부장문화의 권위 속에서 억압되고 갇혀있던 여성의 삶에 대해 사회비판적으로, 때로는 모성애와 같은 따뜻한 감성으로 접근한다. 김희정과 도로시엠윤은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글로벌한 현대사회 속에서 형성된 모호하고 혼란된 여성의 정체성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box P.

강서경, 김동욱, 김을, 김태호, 노상균, 석철주, 오경환, 오원배, 위영일, 유근택, 이경, 장화진, 최선명

box Painting는 여러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는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듯한 ‘회화’의 가치에 주목하고, 나아가 ‘시각예술’ 본질에 대한 고민을 형상화한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작품으로 구성된다.

김동욱과 석철주는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회화의 가치’에 주목하며, 김을, 오경환, 오원배, 유근택, 장화진은 ‘창문’이나 ‘문’, ‘구조물’이 가지는 조형성에 주목, 그 너머의 공간에 다양한 의미를 담아냈다. 평면의 캔버스를 풍경의 요소처럼 배치한 김태호와 감정을 색채화한 이경, 다양한 시간대의 빛을 그린 최선명의 작품은 전시장 한편에 ‘회화적 공간’을 연출하였다.

전시 내용

강서경은 일상의 오브제를 수집하여 새로운 '시각적 형태'로 재창조 해냈으며, 노상균은 수공예적 노동이 수반되는 회화작품을 통해 아날로그적인 미학의 감동을 선사한다. 위영일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조각과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box M.

고영택, 김구림, 김세진, 박경주, 박승원, 임민욱, 정광화, 최수환

box Media는 1960년대 실험미술로부터 동시대의 사회문화담론을 다루는 시의적이고 실험적인 미디어, 설치, 사진 작품이 전시된다.

LED 빛을 이용한 최수환의 '뉴미디어' 작품은 평면의 아크릴판에 입체적인 환영을 만들어낸다. 김구림과 박경주는 자신이 속한 시대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실험적 예술을 선보인다. 김구림의 <공간 구조>는 한국 최초의 '일렉트릭 아트'로 전통적인 회화의 방법론에 도전했던 1960년대 실험 미술의 단면을 볼 수 있으며, 2013년에 초연한 박경주의 <배우 없는 연극>은 동시대 다양한 담론을 담아낸 연극을 생방송 토크쇼 형식으로 재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실험극'이다.

점차 가속화되는 세계화 현상과 도시의 과잉된 기능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과 기억의 상실,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 등의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 고영택은 유학시절 이방인으로서 바라본 독일의 풍경을 영상설치작품 <수영장>에 담았으며, 실시간 소리영상 <반사>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김세진의 영상은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담담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임민욱의 퍼포먼스영상은 도시의 시간과 만남의 궤적을 그린다. 박승원은 몸의 언어를 이용한 동물과의 소통으로 비언어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정광화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기억의 방식을 물질을 통해 시각화한다.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ol. 1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작품전 2013

선물 SeMA Gift

전시 구성

하이라이트

box F.

윤석남

어머니의 이야기, 1993

variable size, mixed media



정정엽

식사준비, 1995

162 x 372cm, oil on canvas



김희정

Pink & White Project / Pink#11-2,
2007, 104 x 125cm, Digital c-print

Pink & White Project / White#07,
2006, 104 x 125cm, Digital c-print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ol. 1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작품전 2013

선물 SeMA Gift

box P.**김태호**

스케이프 드로잉, 2010-2012

variable size,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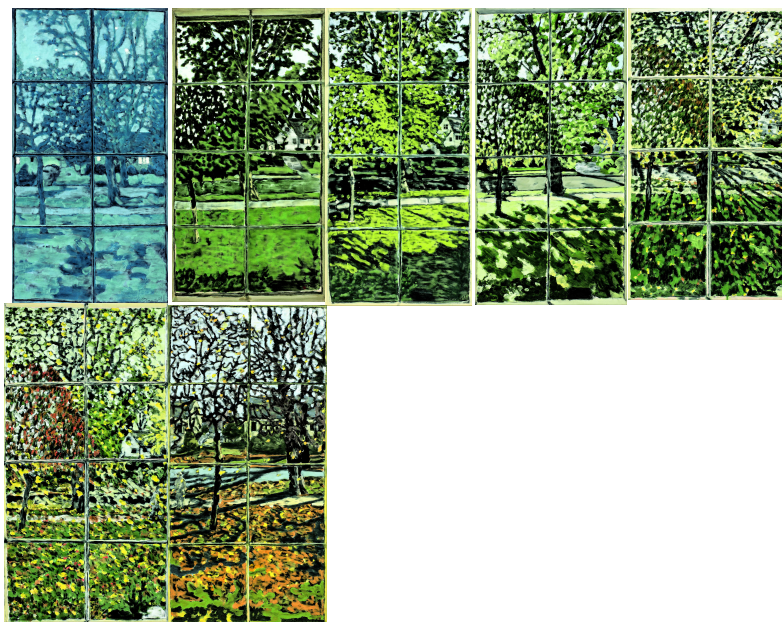
**유근택**

열 개의 창문, 혹은 하루, 2011

90 x 48cm x 10 pcs,

Black ink, White power and

Tempera on Korean Paper

**장화진**

Red Brick House, 2012

164 x 224cm x 6 pcs

Digital image on canvas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ol. 1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작품전 2013

선물 SeMA Gift

최선명

Beyond the Sunset 2011-2013

50 x 50cm x 6 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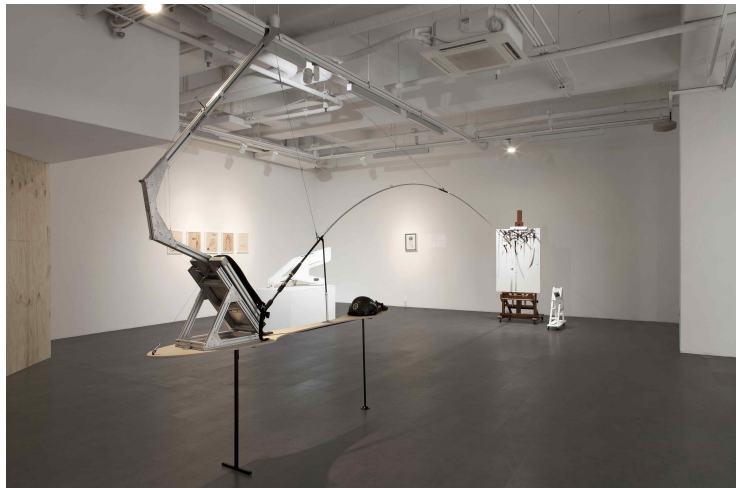
acrylic on wood panel

**위영일**

세상에서 가장 멀리서 수직면에

그림 그리기, 2012

variable size, mixed media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ol. 1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작품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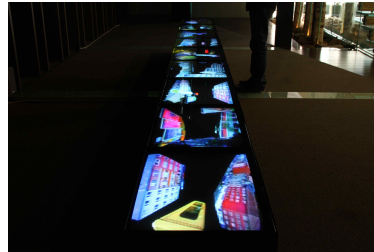
선물 SeMA Gift

box M.

고영택

수영장, 2006

NTSC. installation of video



박승원

siaraM-part2,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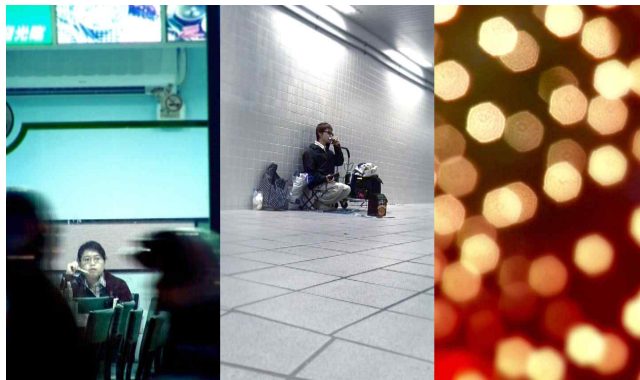
DV-PAL, Single Channel



김세진

나잇 와치, 2006

3 Channel Video



임민욱

S.O.S - 채택된 불일치, 2009

3 Channel Video



기본 정보

주최 : 서울시립미술관
담당 큐레이터 : 도수연
전시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1층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우편번호 100-813
Tel (02)2124-8868, Fax (02)2124-5950

관람시간
10:00 - 20:00 (평일)
10:00 - 19:00 (토·일·공휴일)
매주 월요일 휴관

작품이미지**다운로드 방법**

서울시 웹하드시스템 접속
우측상단 '게스트'옆 동그라미 클릭 후

아이디: bsjihye
비밀번호: sema2013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